

남천가



[해제]

<남천가>는 “신미 모 춘삼월 삼십일 요산 선생이 서 하노라”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작자는 요산으로 볼 수 있고, 창작시기는 신미(辛未)년인 1871년이나 1931년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규방가사 작품이다. 위에서 아래로 죽 이어 쓴 종서의 형태이고, 순국문으로 된 필사본이며, 현재 ‘담양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모두 115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4음보의 가락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여자로 태어나서 많은 고생하고, 고운 얼굴은 부모님께 타고났으며, 순한 성정은 하나님께 선천적으로 타고났으니 여자도리 잘 닦자고 한다. 또 이웃의 계녀 본을 받아 제사 예를 배우고, 사친도(私親道)와 의복제도 등을 배우자고 한다. 그래서 십오 십육 세가 되면 군자 만나 시집가려다 라고 한다. 즉, 시집가기 전에 행신 범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양반 가문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가사(歌辭)를 지어 전승하였는데, 이 작품도 이 때 창작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원문]

남천가

남조라도 일을진딘 녀조로서 엇덜쓴야
 녀조년광 니십세난 반청춘언 고스하고
 운청춘니 느껴진니 낙화시절 분명하다
 솟셀지고 적막하다 황봉벽점 만타한들
 향기업서 싸라오며 조치업서 느라들가
 스람으로 절문씩는 가을의도 춘절리요
 어연간에 늘거지면 봄당히도 추절리라
 절문씩에 춘절당히 더고느 엇더할가
 오미일염 싱각하되 나봄가면 어니할고
 초호신명 최박하야 봄얼보고 조탄한니
 전싱에 무삼죄로 세상장부 못되나고
 인간녀조 도녀느서 규중고심 허단말가
 조티화용 고은얼골 부모님에 타서느고
 완만청중 순한성정 허나님께 품부하야
 녀조도리 싹자흔니 스스니 극난터라
 처빈처조 허올적에 뉴지계녀 싹얼바다
 예상조전 조심하야 제사예렐 비와잇고
 부모지소 가을적에 허괴의성 싹얼바다
 남유녀뉴 분간하야 스친도렐 비와잇고
 침선방적 허올적에 의복제도 비와니고
 정구지님 허올적에 음식지절 아라씨며
 가가거겨 언문익켜 동뉴통정 허야잇고
 언어범절 두로합쳐 녀공자질 허난거시
 미오초등 못허오나 싹길만언 허건마는

십오십륙 열년지나 십구니십 당두토록
 건건곤순 썩니업서 허송방연 무삼일고
 고은얼골 순한성정 히로군자 만나씨면
 솟침직도 허겔마는 어니그리 무정허며
 우귀허여 가을씩는 구고님얼 며신티도
 밧듬직도 허건마는 어니그리 그러허고
 시딕소중 뉘피아라 제사씩럴 당한딿도
 도음직도 허건만는 어이그리 그러허며
 순종군자 허라허면 음식의복 제도범절
 남딿도록 허건마는 어니그리 그러하고
 화피농의 당체화난 제왕가에 출가시요
 도지요요 괴엽진언 퍽성가에 출가시라
 엇던녀조 유복허야 퍽평성딿 하고나서
 혼닌니시 썩안일코 인간자항 길기던고
 외복광부 니무원려 그씩마춤 조흔씩지
 고니허다 훗시딿난 조흔허기 힘씨다가
 조흔어니 못할진딘 실시허기 무삼일고
 녀조흔닌 과시허면 농조흔닌 불급니요
 농조흔닌 과시허면 녀조흔닌 불급이라
 실시안코 갖치만는 봉황원앙 멧멧친고
 서씩마에 엇던동뉴 누와동갑 컷건마는
 스연전에 출가허야 아달났다 기별왓고
 동씩마에 엇던동뉴 누와한히 적건마는
 숨연전에 출가허야 녀식닛다 소문누고
 압이우제 엇던동뉴 나와삼연 적건마는
 거년분에 출가갈제 가매썩에 마리쌀코
 요긱서고 한님머서 거들거리 가난모양
 단장님에 줌싼본니 신가랑니 한썰너라
 뒤니우제 엇던동유 누와사년 적건마는
 거월분에 초횡마즈 서동부서 교빅후에
 빅옥갓탄 그신랑니 초립씨고 당혜신어
 갑스괘즈 현놀여서 오락가락 골목길에
 문틈잠싼 엇듯본니 니상허고 신통터라
 건넌마에 엇던동뉴 누와오연 적건마는
 소문잠싼 드러본니 의양누리 쉬와짜지
 굿부다니 한몸언 어이그리 무정한고
 남에얼골 누도잇고 남에체모 누도알며
 남에년광 갖치먹고 남에일도 알건마난

인간낙얼 전허물느 규중독처 무삼일고
 우리부모 야속하다 어이하여 실시흔고
 실시코저 허올잇가 조흔고절 가리다가
 그러그러 느저썸니 수원수구 허올쏟야
 너무과퍽 허지마소 옥교반졸 쉬오리라
 포뉴미시 괴은녀조 느의소회 다를쏟야
 뉴여여옥 안니오나 길시뉴지 무정하다
 스녀귀처 허올진딘 텃빙미반 허나니라
 잇씨맛춤 춘저리라 각항수한 교집허야
 후원증싼 비회터니 각식화초 반갑도다
 황조야 시럼마라 썩거썩니 썩얼지워
 포란화혹 느라들제 너어니 시럼허라
 춘규자한 니한몸언 미물마도 못할쏟야
 도화니화 목단화며 중미작약 허당화논
 모도합쳐 우거저서 봉점각각 느라드러
 반함교퍽 반함수로 조양석월 우숨웃고
 봉가점무 썩얼지워 숨춘가절 조컨마는
 후원안에 봉순화논 봉점업시 향기논니
 기이허다 봉순화야 이승허다 봉순화야
 그이름도 뉴의허고 그자질도 선연허다
 손구성춤 열출제 봉황식의 식봉썩요
 남풍시오 현금언 임금순썩 조흘씨고
 아람다운 니썩일흙 화중요순 안일년가
 세상스람 무식허야 잇썩친줄 몰느썩가
 이썩보고 칭각허니 나소회느 다를쏟야
 반흙반퍽 고은퍽도 풍우성니 두러워라
 썩다지고 봉점오면 무삼춘흙 잇실난지
 초라리 늦기피여 구월국화 되얏씨면
 풍상요락 시럼업고 은처사라 허련마는
 엇지타 봉순화논 남과갓치 봄에피서
 조흔봄얼 허송하고 그디도록 지단말가
 인간공도 무가니라 어느스람 안늘그가
 인간조항 썩맛추면 늘거진다 한탄하랴
 조항업시 늘거지면 조년탄식 업실쏟야
 구비구비 미친정회 폭이폭이 썩인심스
 부모동고 친타흔들 그런말얼 어니허며
 노든동뉴 좃타한들 그런설화 어니허랴
 혼조두고 탄식한일 그뉘라서 아올쏟야

뉴뉴총천 아련마는 천불언혀 어니허며
암암신도 아련마는 귀불언혀 어니허랴
춘규조탄 허난말언 예의손상 되려마난
정옥방조 미가허야 광봉치점 조심허라
규중심처 흘노안자 주주야야 품은탄식
훈닌잔초 회갑잔초 남가는되 다뭇가고
화전씩와 춤외씩난 남가는되 못갈너라
어니허야 니한몸언 니십당년 허도한고
월노홍승 속키비러 군자호구 만닌되도
군자연광 어리시면 닉으청춘 반니너머
어린실냥 늘근신부 무삼자항 길길쏟야
규중조탄 첩첩허늑 수괴허맘 압혈막아
흠흠니씨 노란니 뒤강허고 곳치노라
신미모 춘삼월 삼십일 요산선칭이
서 허노라

[현대역]

남천가

남자라도 일을진댄 여자로서 어떨소냐
여자연광1 이십세는 반청춘2은 고사하고3
운청춘이 늦어지니 낙화시절 분명하다
꽃떨치고 적막하다 황봉백접4 많다한들
향기없어 따라오며 자태없어 날아들까
사람으로 젊은때에 가을에도 춘절5이요
어언간6에 늙어지면 봄당해도 추절7이라
젊은때에 춘절당해 더구나 어찌할까
오매일염8 생각하되 나봄가면 어이할고
차호신명9 최박하여10 봄을보고 자탄하니
전생에 무슨죄로 세상장부11 못되나고
인간여자 되어나서 구중고생12 하단말가
자태화용13 고운얼굴 부모님에 타서나고
완만청중 순한성정 하나님께 품부14하여
여자도리 딱자하니 사사이 극난터라
채빈채조 하올적에 유재계녀15 본을받아
예상조전 조심하여 제사에를 배워있고
부모지소 가을적에 하기의성 본을 받아
남유여유 분간하여 사친도16를 배워있고
침선방적17 하올적에 의복제도 배워내고
정구지님18 하올적에 음식지절 알았으며
가가거겨 언문19익혀 동류통정 하여있고
언어범절 두루합쳐 여공자질20 하는 것이
매오초등 못하오나 썩힐마는 하건마는
십오십육 열른지나 십구이십 당도토록
건건곤손 짝이없어 허송방연21 무삼일고
고운얼굴 순한성정 해로군자22 만났으면
꽃침23직도 하건마는 아니그리 무정하며
우귀하여 가을때는 구고24님을 모신대도
밧듬직도25 하건마는 아니그리 그러하고
시덕소중 높이알아 제사때를 당한대도
도음직도26 하건마는 아니그리 그러하며
순종군자 하라하면 음식의복 제도범절
남대도록 하건마는 아니그리 그러하고
화피농의 당체화는 제왕가27에 출가시요

도지요요 기업지는 백성가28에 출가시라
 어떤여자 유복하여 태평성대29 하고나서
 혼인일시 때안읽고 인간자항30 길기던고
 외복광부31 내무원려32 그때마침 좋은때지
 고이하다 훗시대는 조흔33하기 힘쓰다가
 조흔어이 못할진댄 실시하기 무삼일고
 여자혼인 과시하면 남자혼인 불급34이요
 남자혼인 과시하면 여자혼인 불급이라
 실시안코35 같이만나 봉황원앙 몇몇인고
 서작마에 어떤동류 나와동갑 크건마는
 사년전에 출가하여 아들낳다 기별왔고
 동작마에 어떤동류 나와한해 적건마는
 삼년전에 출가하여 여식36낳다 소문나고
 압이우제37 어떤동류 나와삼년 적건마는
 거년분에 출가갈때 가마뒤에 머리뺏고
 요객서고 한님머서 거들거리 가는모양
 단장님에38 잠깐보니 신가랑이 한뼘러라
 뒤이우제39 어떤동류 나와사년 적건마는
 거월분에40 초행41맞아 서동부서 교배후에
 배옥같은 그신랑이 초립42쓰고 당혜43신어
 감사괘자 휘날려서 오락가락 골목길에
 문틈잠깐 언듯보니 이상하고 신통터라
 건내마에44 어떤동류 나와오년 적건마는
 소문잠깐 들어보니 의양나리 쉬와따지
 굿부다니 한몸은 어이그리 무정한고
 남에얼굴 나도있고 남에체모 나도알며
 남에연광 같이먹고 남에일도 알건마는
 인간락을 전허몰라 구중독처 무삼일고
 우리부모 야속하다 어이하어 실시한고
 실시코저 하올있가 좋은고절 가리다가
 그러그러 늦었으니 수원수구45 하올소나
 너무과택46 하지마소 옥교반줄 47쉬우리라
 포뉴매시 기은여자 나의소회48 다를소나
 유여여옥 아니오나 길시유지 무정하다
 사녀귀처49 하올진댄 태빙미반 하나니라
 이때마침 춘절이라 각항수한50 교집51하여
 후원52잠깐 배회터니 각색화초53 반갑도다
 황조야 시름마라 쌍거쌍내 쌍을지워

포란화흙 날아들때 너어이 시름하라
춘규자한 이한몸은 미물마도54 못할소냐
도화이화55 목단화며 장미작약 해당화는56
모두합쳐 우거져서 봉접57각각 날아들어
반함교태58 반함수로 조양석월 웃음웃고
봉가접무59 쌍을지워60 삼춘가절61 좋건마는
후원안에 봉선화는 봉접없이 향기나니
기이하다 봉선화야 이상하다 봉선화야
그이름도 유의하고 그자질도 선연하다
손구성춤 열출제 봉황새의 새봉짜요
남풍시오 현금은 임금순짜 좋을씨고
아름다운 이꽃이름 화중요순62 아닐런가
세상사람 무식하여 이꽃인줄 몰랐던가
이꽃보고 생각하니 나소회나 다를소냐
반홍반백63 고운태도 풍우성64이 두려워라
꽃다지고 봉접오면 무슨춘흥65 있을런지
차라리 늦게피어 구월국화 되었으면
풍상요락66 시름없고 은처사라 하련마는
어찌타 봉선화는 남과같이 봄에피서
좋은봄을 허송하고 그대도록 지단말가
인간공도 무가내라 어느사람 안늙을까
인간자향 때맞추면 늙어진다 한탄하라
자향없이 늙어지면 자연탄식 없을소냐
급이급이 맺힌정회67 폭이폭이 쌓인심사
부모동기 친타한들 그런말을 아니하며
놀던동류 좋다한들 그른설화68 어이하랴
혼자두고 탄식한일 그뉘라서 아올소냐
유유장천 아련마는 천불엿혀 어이하며
암암신도 아련마는 귀불언혀 어이하랴
춘규자탄69 하는말은 예의손상 되련마는
정옥방자 미가하여 광봉치점 조심하라
구중심처 홀로앉아 주주야야 품은탄식
훈인잔치 회갑70잔치 남가는데 다뫼가고
화전때와71 참외때는 남가는데 못갈러라
어이하어 이한몸은 이십당년 허도한고
월로홍승 속히빌어 군자호구 만난대도
군자연광 어리시면 나의청춘 반이넘어
어린신랑 늙은신부 무삼자향 길길소냐

남천가

구중자탄 첩첩72하나 수괴한맘73 앞을막아
흠흠이씨 노란이 대강하고 그치노라
신미74모 춘삼월75 삼십일 요산선생이
서76 하노라

[각주]

- 1) 연광(年光) : 젊은 나이.
- 2) 청춘(靑春) :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
- 3) 고사(姑捨)하고 : 그만두고.
- 4) 황봉백접(黃蜂白蝶) : 황봉(黃蜂)은 꿀벌. 백접(白蝶)은 흰나비.
- 5) 춘절(春節) : 봄철.
- 6) 어언간(於焉間) :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 7) 추절(秋節) : 가을철.
- 8) 오매일염(寤寐一念) : ‘오매일념’임. 오매(寤寐)는 자나 깨나 언제나. 일념(一念)은 한결같은 마음. 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 9) 신명 : 흥겨운 신이나 멋.
- 10) 최박(催迫)하여 : 핍박하여.
- 11) 장부(丈夫) : 다 자란 씩씩한 남자.
- 12) 구중(九重)고생 : 아홉 겹이라는 뜻으로, 여러 겹이나 층을 이르는 말로, 많은 고생을 이룸.
- 13) 자태화용(姿態花容) : 자태는 어떤 모습이나 모양. 주로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에 대하여 이르며 식물, 건축물, 강, 산 따위를 사람에게 비유하여 이르기도 함. 화용은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
- 14) 품부(稟賦) : 선천적으로 타고남.
- 15) 유재계녀(季女) : 유제임. ‘이웃’의 방언(전남). 계녀는 막내딸.
- 16) 사친도(私親道) : 자신의 친족(親族)에게 행하는 도리.
- 17) 침선방적(針線紡績) : 침선은 바늘과 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바느질. 방적은 섬유 원료로 실을 뽑아 피륙을 짜 내기까지의 모든 일. ‘길쌈’으로 순화.
- 18) 정구지님 : 정구는 ‘절구’의 방언(경북).
- 19) 언문(言文) : 말과 글.
- 20) 여공자질(女功資質) : 여공은 예전에,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질. 자질은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 21) 허송방연(虛送芳年) : 허송방년임. 허송(虛送)은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냄. 방년(芳年)은 이십 세 전후의 한창 젊은 꽃다운 나이.
- 22) 해로군자(偕老君子) : 해로는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음. 군자는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 23) 꽃침 : 꽃히다.
- 24) 구고(舅姑)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25) 받듬직도 : 받들다.
- 26) 도음직도 : 돕다.
- 27) 제왕가(帝王家) : 제왕의 가정.
- 28) 백성가(百姓家) : 백성의 가정. 백성은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예전에,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던 말.
- 29) 태평성대(太平聖代) :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 30) 자항(慈航) : 불교에서, 중생을 자비심으로 구하는 일.
- 31) 광부(曠夫) : 홀아비.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남편.
- 32) 원려(鴛侶) : 배필.
- 33) 조혼(早婚) :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함. 또는 그렇게 한 혼인.
- 34) 불급(不及) : 약속하거나 기약한 시간에 미치지 못함.
- 35) 실시안코 : 싫지 않고.
- 36) 여식(女息) : 딸.
- 37) 압이우제 : 앞의 이웃.
- 38) 단장(短牆)넘에 : 낮은 담 너머에.
- 39) 뒤이우제 : 뒤의 이웃.
- 40) 거월분(去月) : 지난달에.
- 41) 초행(醜行) : 신랑이 초례를 지내기 위하여 처가로 감.
- 42) 초립(草笠) : 예전에, 주로 어린 나이에 관례를 한 사람이 쓰던 갓. 썩 가늘고 누런 빛깔이 나는 풀이나 말총으로 결어서 만들었음.
- 43) 당혜(唐鞋) : 예전에 사용하던 율이 깊고 앞 코가 작은 가죽신. 흔히 앞 코와 뒤꿈치 부분에 꼬부라진 눈을 붙이고 그 위에 덩굴무늬를 새긴 것으로, 남녀가 다 신었음.
- 44) 건내마에 : 건너 마을에.
- 45) 수원수구(誰怨誰咎) :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냐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46) 과택 : ‘과택(寡宅)’의 방언(강원, 경기, 경남, 전라, 충북). 홀어미. 과수택(寡守宅)의 준말.
- 47) 욕교반졸(欲巧反拙) : 잘 만들려고 너무 기교를 다하다가 도리어 졸렬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뜻으로, 너무 잘하려 하면 도리어 잘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48) 소회(所懷)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 49) 사녀귀처(士女貴處) : 사녀는 남자와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귀처(貴處)는 귀지(貴地)인데, 상대방의 사는 곳에 대한 경칭임.
- 50) 각항수한(各項) : 각항은 각가지. 수한은(愁恨) 근심하며 원망함. 즉, 여러 가지 근심과 원망.
- 51) 교집(交集) : 이런저런 생각이 뒤얽히어 서림.
- 52) 후원(後園) : 집 뒤에 있는 정원이나 작은 동산.
- 53) 각색화초(各色花草) : 각색은 갖가지의 빛깔. 화초는 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꽃이 없더라도 관상용이 되는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54) 미물(微物)마도 : 작고 변변치 않은 물건보다도.
- 55) 도화이화(桃花梨花) : 도화는 복숭아꽃. 이화는 배꽃.
- 56) 목단(牡丹)화며 장미(薔薇)작약(芍藥) 해당화(海棠花)는 : 목단은(牡丹) 모란. 장미(薔薇)는 장미과 장미속의 관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높이는 2~3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임. 5~6월에 담홍색, 담자색, 흰색 따위의 꽃이 피. 개량 품종이 많은 관상 꽃나무임. 작약(芍藥)은 작약과의 여러해살이풀을 통틀어 이르는 말. 꽃이 크고 아름다워 정원에 관상용으로 재배함. 백작약, 산작약, 적작약, 호작약 따위가 있음. 해당화(海棠花)는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1~1.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우상
- 57) 봉접(蜂蝶) : 벌과 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58) 교태(嬌態) : 아리따운 자태.
- 59) 봉가접무(蝶舞) : 접무는 나비춤. 벌과 나비가 노래하고 춤을 춤.
- 60) 쌍을지위 : 쌍을 이루어.
- 61) 삼춘가절(三春佳節) : 봄철 석 달의 좋은 시절.
- 62) 화중요순(花中堯舜) : 화중은 꽃 속. 또는 여러 가지 꽃 가운데. 요순은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63) 반백(半百) : 백의 절반인 쉰.
- 64) 풍우성(風雨聲) : 바람과 비가 함께 내리는 소리.
- 65) 춘흥(春興) : 봄철에 절로 일어나는 흥과 운치.
- 66) 풍상요락(風霜搖落) : 풍상은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요락은 흔들리어 떨어짐. 또는 흔들려 떨어뜨림.
- 67) 정회(情懷) : 생각하는 마음. 또는 정과 회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68) 그른설화 : 그런 이야기.
- 69) 춘규자탄(春閨自歎) : 춘규는 젊은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 또는 부인의 침방. 자탄은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탄식함.
- 70) 회갑(回甲) : 환갑(還甲).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 71) 화전(花煎)때와 :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나 개나리, 국화 따위의 꽃잎이나 대추를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을 먹는 시기.
- 72) 첩첩(疊疊) : 중첩한 모양. 겹친 모양.
- 73) 수괴(殊怪)한망 : 수상하고 괴이한 망.
- 74) 신미(辛未) : 육십갑자의 여덟째.
- 75) 춘삼월(春三月) : 봄 경치가 한창 무르익는 음력 3월.
- 76) 서(書) : 글.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